

'주체적 공산주의 인간' 창출 주력

북한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얼마전 '통일전망대'에서 일본 록그룹이 북한을 방문 공연한 장면을 보여준 적이 있다. 일본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그대로 녹화해 방영하였다. 시끄러운 음악, 악을 쓰는 듯한 목소리, 선정적인 옷차림과 신랄한 머리가 우리에게 친숙할 지 몰라도 북한사회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구경거리였을 것이다. 이 프로그램이 의도하고자 했던 것은 '북한은 문화예술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북한도 문화의 침투를 통해 서서히 개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진위나 내용이 어찌든 TV기자의 인터뷰에 응했던 어느 여대생의 말이 인상적이다.

로 규정해 놓은 사회에서는 더욱 더 그 사회전반을 이해하는 작업이 앞서야 한다. 흔히 자본주의적 시각으로 사회주의의 문화를 재단하는 경우가 있으며, 대부분 '무미 건조하다' '천편일률적이다' '순수하지 못하다'는 그릇된 평가를 내리곤 한다. 개인이기주의와 물질적 부의 축적을 최고의 이념으로 생각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회주의문화를 이해하려 하면 할수록



대 > 문화는 시대에 의해 규정되며, 그 시대의 사람들의 요구에 근거한다.

왜 왔는가? 공연이 있다는 말을 듣고 한번 구경해 보려고 왔다. 보고나 느낌은? -글쎄, 잘 모르겠다. 상당히 시끄럽더라'

앞선하게 차려입은 관객들, 흥이 나지 않는지 그저 곡이 끝날 때마다 관성적으로 박수를 쳐주는 모습에서 어쩌면 분단의 세월이 갈라놓은 문화적 풍토를 느끼고 개탄했을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현상이 '문화의 이질성'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을까. 폐쇄된 사회가 가져오는 문화의 정체성이라고 보아야 하는 걸까.

북한의 문화를 이해하려면 북한 사회를 이해해야 한다. 문화는 사회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그 사회구성원들에 의해서 목적의식적으로 대동한다. 특히 북한과 같이 '문화'의 지위와 역할을 사회적으로

과도적 사회주의 국가, 혁명적 문예 전통 강조 통일열의로 민족의 문화단절성 극복해야

이질적이며 공유하기 힘든 면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는 인간이 만들어낸 많은 생산물 중에서 인간을 가장 아름답게 해주는 것중의 하나라고 할 때, 체제상의 가치평가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평가기준을 세운다면 어떤 공통분모를 발견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문예행위에 있어서 몇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지

키러 한다. 이를 가리켜 '주체의 문예이론'이라 말하며, 우선적으로 문예에서 주체를 세우는 문제와 혁명적 문예전통을 강조하고 세부적으로는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등을 중요한 지표로 삼는

간'을 의미하는데 '주체적 공산주의 인간'이 제기되는 이유는 북한의 사회적 성격규정에서 나온다. 북한은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로 가는 과도기적인 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사회는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지며, '과도기적인 성격'이란 첫째, 계급적 대립은 청산되지만 계급적

화의 낙후성에 있으며,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공산사회를 실현하지 못한다고 보고있다. 문화는 이러한 과정에 따라 완전한 공산사회 건설의 선결요건인 '공산주의적 인간'을 구현하는 데에 복무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북한문화의 지위와 역할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북한문화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북한 문화는 내용과 형식면에 있어서 서구 외래문화에 젖어버린 우리 문화와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소비·향락·외래문화가 가져오는 폐해성은 없다. 하지만 북한 문화전반을 좌우하는 기준이 문예활동을 통해 사회성원이 주체적 인간으로 되어간다는 점에 두어져 있기에 현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작품의 이면을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과연 문화란 인간생활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사회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과제를 자신의 지표로 삼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문화는 인간을 위해 인간이 만들어 낸 정신적인 생산물이다. 그러므로 문화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로인해 문화는 인간에게 복무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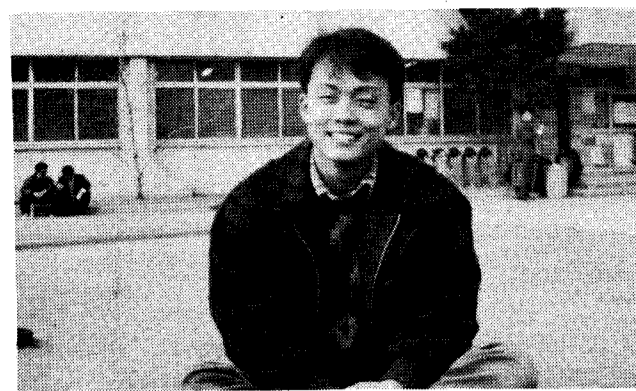
하지만 오늘날 우리 문화는 인간답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 특히 생산의 측면에서는 소비의 측면에서 강조되는 것이 자본주의적 문화이다. 자본주의적 시각으로 북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측면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이한 남북쪽의 문화가 어떻게 융화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된 것 같다. 문화는 시대에 의해 규정되며, 그 시대 사람들의 요구에 근거한다. 통일을 위한 시대, 통일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요구는 문화의 단절성을 극복할 수 있다.

단지 남북과 북쪽의 문화가 형식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통일과업의 완수를 위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여야 될 것이다.



참삶, 참사랑, 참사람을 지향 한의대 '소리결'의 이근호군을 만나



'참삶, 참사랑, 참사람'을 지향하는 한의대 노래패 '소리결'의 패장 이근호(한의부·1)군은 환한 웃음으로 인사를 대신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무작정 노래가 좋아서 '소리결'에 들어왔다는 그는 "전체변혁 운동에 노래라는 무기로서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동아리 생활의 포부를 밝혔다.

노래를 사랑하는 한의대 학생들이 모여 지난 88년 창립한 '소리결'은 그간 민족과 기층민중의 정서를 노래하는 데에만 편중된 나머지 많은 회원들이 탈퇴하였다. 아쉬워 하는 이근호군은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넓혀주자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기도 했다.

방송매체에서 주최하는 대학가요제는 출연대상이 대학생으로 한정되었을 뿐 기성 쇼 프로그램과 다를 게 없으며 대중문화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그는 대학문화는 기존의 대중문화와 다르게 다함께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대학문예인으로서의 사명감을 펴려 하였다.

후배들이 자신의 지도와 애정 어린 비판을 이해하고 잘 따라올때 동아리로서 보람을 느낀다는 그는 지난 동아리 생활 동안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스럽게 생각한다. '소리결'의 소속이 한의대에 있고 회원들이 모두 한의대생이기 때문에 먼저 한의대내에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소리결'의 과제라고 말하는 그는 작년 제3회 정기공연에서 '함께

"후배들이 애정어린 비판을 이해하고 잘 따라올때 보람느껴"

사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창작노래를 선보이면서 대학내에 만연되어있는 개인주의적이고 고립적인 사고를 개혁하고자 노래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는, 작년 간에 작업은 패원들간의 화의를 통해 꾸려간다는 그는 '소리결' 자체내의 음악이론 감상, 기타연주 감상등을 통해 기량을 닦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한의대생이 동아리와 학습을 병행하는 것은 무척 힘들다며 그는 올해 패장을 맡아 동아리

생활때문에 학업을 소홀히 할 것 같아 걱정했는데, 오히려 스티디를 참여해 더 폭넓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소리결 회원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기성세대와 똑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회원들이 자기 삶속에서 건 강한 세계관을 확립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그는 대

규모 공연보다는 소공연으로 학생들과 자주 만나며, 동아리의 역량을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90년 통일노래만화담에 참가하여 4등에 입상하였는데 발표한 노래가 개인창작곡이라 '소리결'내에서도 호응을 얻지 못했으며 패원 전체가 창작에 참여하여 다시 한 번 통일노래만화담에 참가하고 싶다는 희망을 이야기하며 자리를 정리했다.

<서동국 기자>

제6회 생활미술품 열린 장터전

'민중미술협회' (이하 민미술협) 산하 '생활미술연구회'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그림마당 민'에서 여러 공방 및 개인들과 함께 '제6회 생활미술품 열린 장터전'을 열고 있다.

지난 87년 민미술협내 '생활미술분과'로 발족해 지금까지 생활의 구성요소에 민족의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작품들을 만들어 온 생활미술 연구회는 지난 5회까지는 작품의 전시만을 해왔으나 관람객들의 판매요구가 쇄도하고, 또 각 사업장에 지급할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행사에서부터 '열린 장터전'을 개최함으로써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시·판매되는 작품들은 그림, 도, 나무, 한복, 나드리, 화용품, 다기세트, 한지, 찻상 등 모두가 민족적인 정서를 품은 품귀는 생활미술품들이다. 이미 사회와 외래문화가 거의 모든 생활에 젖어들어 있는 현실을 개혁하고 민족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이번 '열린 장터전'에는 생활미술연구회 외에 솜새공방, 누렁소, 참교육사, 수니공방, 지선터 등 11개



공방과 다수의 개인이 참여하였다.

'건강한 민족문화의 보급'의 취지로 활동하고 있는 '솜새공방'은 인쇄매체로서 달려, 엽서, 편지지, 축하카드 등을 출판하였으며, '참교육사'는 문화적 사대주의를 탈피하기 위해 학생들의 문구류와 의류에 우리 말을 새겨 예쁘게 디자인하였고, 민족의상 연구소인 '누렁소'는 우리 민족의상을 현대화시켜 실용적이고 세련된 의류를 선보이며, '수니공방'은 도자기 기술을 통해 목걸이, 장식품 등

신간안내

작은 나무 산에서 내려오다 <미국 서점연합회에서 제정한 '제1회 ABBY상'을 수상하고, 지난해 뉴욕타임즈에 베스트셀러 1위로 선정된 포리스트카터 원작의 '작은 나무 산에서 내려오다'가 임재영씨 번역으로 '知文社'에서 발행되었다.

이 책은 아메리카 백인들이 인디언원주민들에게 저지른 잔인한 역사를 고발하고, 작가 자신이 체험한 인디언의 소멸되는 과정을 사실 그대로 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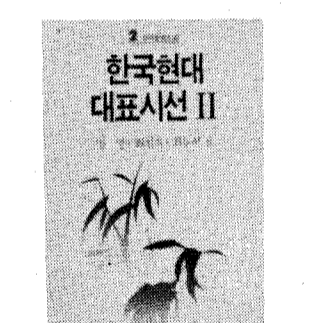
20세의 원점 모든 사람의 정당성을 촉박한 리모 풀어나간 60년대 60년대를 살다간 한 여대생의 실화일기 '20세의 원점(上·下)'이 국일문화사에서 출판되었다. 교묘의 리스메이칸대학에 다니던 '다카노 에츠코'는 학생은

문 화 단 신

이성환 <한국외대 서반어학>

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성에 대한 영웅에 열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 어디서도 존재의의를 찾지 못하다 69년 6월 철도자살을 한다. 과연 그녀가 선택할 길이 허무한 죽음밖에 없었는지, 이 책을 읽으며 생각해볼 일이다.

한국현대시선 II



한국 시사의 50·60년대 시인들을 모든 선입견과 편견을 배제하고 각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들을 망라한 '한국현대시선

새남빛이 영화제

신입생들에게 좋은 영화를 보

II'가 '창작과 비평사'에서 발간되었다. 지난 90년9월 발표했던 '한국현대시선 I'에 이어 출간된 이 책은 민영 (시인), 최원식 (인문대교수·국문학), 최두석 (강릉대교수·국문학) 등 3명의 편집위원이 위촉되어 각각 50년대 전기·후기, 60년대를 정리하였다.

아주 작은 세상

영국 버밍엄대학 영문학 교수로서 아카데미칼 소설과 다수의 비평에세이를 출간한 바 있는 '데이비드 로지'의 총서소설 '아주 작은 세상'이 도서출판 '영웅'에서 출판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국제적인 문학학술회의를 배경으로 이곳저곳을 천방지축으로 쫓아다니는 학자들의 모습을 통해 지식인의 인간성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이 소설은 풍부한 유머와 놀라운 재치로 독자들을 사로잡는다. 옮긴이는 이광식씨이다.

'92도요강좌' 개설

선사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와 역사의 맥을 진다하게 될 '92도요강좌'가 국립중앙박물관 주최로 국립중앙박물관 사회교육과에서 열린다. 이는 28일부터 11월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강좌의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2시부터 4시 30분까지이며 이기동(동국대학교수)의 '한국의 고대사'와 조재명(원광대학교수)의 '도자기의 공예' 등 각각 저명한 인사들로부터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3월24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나는 유권자다!



썩은 정치라고 관심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옛날 남편과 자식들을 호랑이에게 빼앗긴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무덤 옆에서 통곡하며 울고 있던 이 여인에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공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이 고을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여기는 고통을 주는 정치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지금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십시오. 얼룩지고 혼탁하기 짝이없는 고통스런 정치가 보일 것입니다. 1, 2년 일이 아니라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해서, 관심없다고 포기해 버리면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조국통일은 아득하게만 느껴집니다.

지금 결정하십시오. 나는 유권자다! 당당한 나의 환표를 행사하십시오. 섣달이 작은 합일지라도 하나하나의 우리의 환표가 조국의 자주, 민주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새날을 여는 민족자주론의 선봉 — 전국대학신문 기자연합

나의 환표가 조국의 민주화를 위한 작은 노력임을 잊지 마십시오